



2. 동성애에서 벗어나거나 치료된 사례가 있나요?

먼저 동성애 치료에 관계되었던 전문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Bieber 박사는 20년간의 조사를 통하여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능성은 약 30%에서 50%까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⁷ 그리고 그의 치료된 환자들을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여전히 이성애자로 남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⁸ Masters와 Johnson은 67명의 동성애자와 14명의 레즈비언을 치료한 결과 6년 후에 71.6%의 성공률을 보고하였습니다.⁹ 정신과의사인 Wilson박사는 기독교인인 동성애자를 치료하였을 때에 55%의 성공률을 나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¹⁰ 임상심리학자인 Kronmeyer박사는 **약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에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 Bieber, I. Homosexuality: A Psychoanalytic Study (New York: Basic Books, 1962).

8 Bieber I. and T. B. Bieber, Male Homosexual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4(5), 416, 1979.

9 Masters W. H. and V. E. Johnson, Homosexuality In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9).

10 Anon, 'Gays can change' says psychiatrist, Exodus Standard 6(2), 6, 1989.

그런데, **미국정신의학협회는 1973년에 동성애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동성애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에는 동성애 치료에 성공한 결과들이 학술지에 많이 실렸는데, 이후에는 철저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러한 업적들이 정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동성애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쳐 이제는 정신과 의사들도 동성애 치료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992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동성애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반발하여 NARTH^{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and Therapy of Homosexuality}라는 단체를 창립하였습니다. 1년 후에는 약 50명이 참여하였으며, 2007년에는 1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NARTH의 창립자인 Joseph Nicolosi는 남성 동성애의 치료 방법을 다루는 책을 썼다는 이유로 많은 항의 전화와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논문에서 소개된 동성애에서 회복된 사례들도 있습니다.¹¹ **서울 갈보리채 플교회의 이요나 목사는** XTM케이블 토론에 나와서 ‘나도 43살까지 유명한 남성 동성애자 연예인과 똑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느껴 온 이요나 목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교생인 친척 형제로부터의 동성애 성폭행으로 동성애에 중독이 되었고 동성애로 말미암아 젊은 시절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요나 목사는 25년 전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게이바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동성애자로 살았던 그가 이성애자로 바뀌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예수를 영접한 후 **12년 동안의 뼈를 깎는 믿음의 투쟁 후였으며 그렇게 43살에 본래의 성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탈동성애자 앤드류 코미스키^{Andrew}

Comiskey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동성애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를 비밀로 하다 대학 졸업 후에 전적으로 동성애적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파티에서 집단 강간과 구타를 당한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으며, 1976년 11월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UCLA에서 공부하다가 부인 애넷을 만났고 후에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를 취득했습니다. Vineyard Anaheim에서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지원그룹을 시작했고 곧이어 데저트스트림 사역^{Desert Stream Ministry}을 창설하였습니다. 현재 데저트스트림 사역의 대표로서 동성애 회복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성중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의 저

자 마이크 즈농^{Mike Genung}은 13년 동안 5명의 심리학자와 2명의 정신과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고, 8년 이상 프로그램과 책을 읽었지만 치유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서, 깊은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의 핵심이 되는 수치심과 여전히 굴레로 작용하는 아픈 기억들에 대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Parents and Friends of Ex-Gay and Gays의 전 대표였던 Richard Cohen, 아프리카계 미국인 레즈비언을 위한 잡지 Venus의 편집장이었던 Charlene Cothran, CCM 가수이자 작곡자인 Dennis Jernigan, National Coming Out of Homosexuality Day의 회장이었고 Kerusso Ministries의 창시자인 Michael Johnston 등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난 대표적인 인물들로 꼽히고 있으며, 동성애를 벗어났거나 벗어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1. 김원평과 장현일, 동성애의 치유가능성과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 한국창조과학회 발표논문집 2008.

미국의 대학교 영문학 종신교수로 잘 나가던 레즈비언 로자리아 버터필드 교수는 박사과정 중이던 28세에 레즈비언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36세에 뉴욕 시러큐스 대학 종신교수가 되어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쳤으며, 프로이트와 헤겔, 마르크스, 다윈의 세계관을 추종했습니다. 레즈비언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에이즈 관련 활동, 아동 보건 및 문맹 퇴치 운동, 애완견 골든리트리버 구조 활동 등을 통해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36세에 한 목사의 편지를 통해 기독교를 접하게 된 후 회심하였고, 이성애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제네바 대학 연구교수를 지냈으며, 2001년 결혼을 하여 더 램개릭장로교회 사모이자 엄마로서 자녀들을 홈스쿨링하고 지역 사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국내에서 '뜻밖의 회심(아바서원 2014)'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가졌던 미국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후 탈동성애를 하고 자신의 성적체성을 회복한 이야기를

'나의 마음 이곳에' *Here's my Heart*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¹² 또한, 과거 동성애자로 살다가 회복되어 이성과의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된 짐 도멘 목사는 자신의 탈동성애 이야기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¹³ **올해 5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탈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가 개최**되었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의 거리 행진은 미국에서 처음 열린 것인데 동성애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¹⁴

세계적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Courage, 장로교의 One By One, 감리교의 Transforming Congregations, 유대교의 JONAH가 있으며, 소년을 위한 Exodus Youth, 그리고 탈동성애자 교사 및 학생을 돕기 위한 NEA Ex-Gay Educators Caucus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북미의 대표적인 탈동성애단체로는 앤드류 코미스키가 1981년에 창설한 데저트스트림 사역이 있으며, 유럽의 탈동성애단체 Exodus Europe, 영국의 True Freedom Trust, 스웨덴의 Medvandarna, 노르웨이의 Til Helhet, 덴마크의 Basis, 핀란드의 Aslan, 벨기에의 Different, 네덜란드의 Onze Weg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탈동성애단체로서 1978년에 Peter Lane은 Liberty Ministry라는 호주의 첫 탈동성애 단체를 창설하였고, 중동에는 유대교인을 위한 Atzat Nefesh와 무슬림을 위한 Al-Tawbah가 있습니다.

12. '탈동성애' 기독교인들의 간증 다룬 미 다큐멘터리 화제, 기독교일보, 2017.10.13.

13. <http://www.jimdomen.com/>

14. Why the LGBT movement mercilessly bullies this smallest, most rejected minority in America, LifeSite News, 2018.5.8.

한국에는 2006년 11월에 설립된 웰스프링이 2007년 9월부터 첫 동성애자 지원 그룹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요나 목사가 세운 크리스천 상담실과 한국 성경적 상담자 협회가 동성애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상담실은 2000년 5월에 이요나 목사가 다음 카페에 **‘이요나 크리스천 상담실’**을 개설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상담을 통하여 꾸준히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이미 많은 동성애자들이 회복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적 상담자 협회는 2007년 1월에 미국성경적 상담 협회의 김주원 박사, 박영률, 이요나 목사, 금주학과 대표 김도형 목사 등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IABC, NANC, BCF와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동성애, 성중독, 알코올, 마약, 게임중독, 우울증 등을 상담 치유하고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